



2023. 2. 20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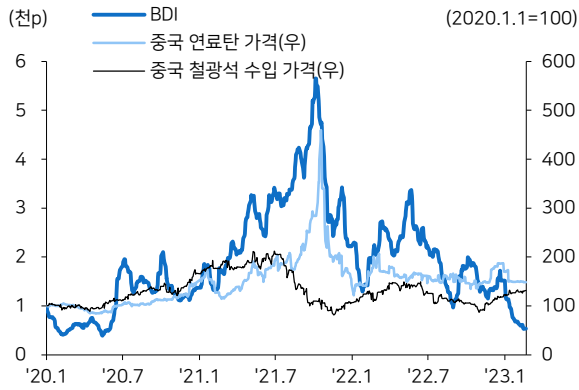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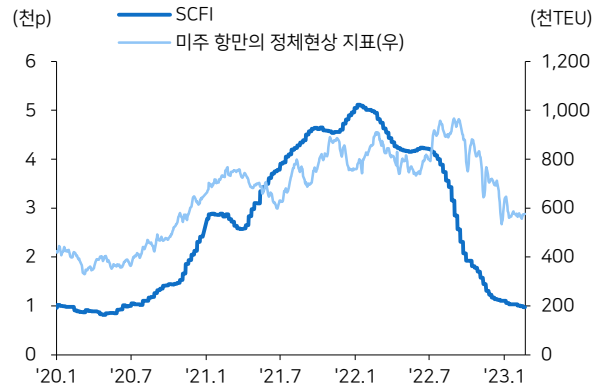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a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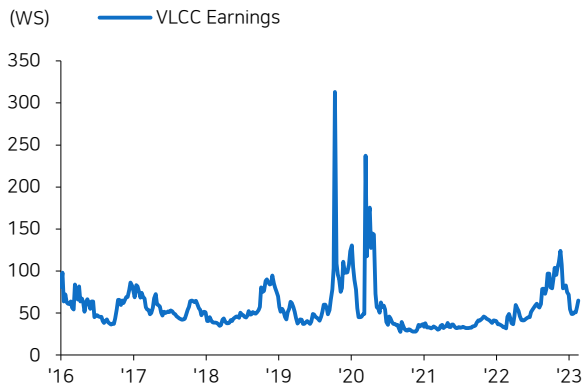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538.0p(+8.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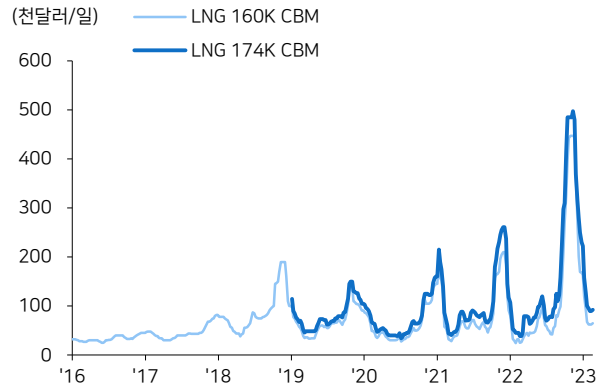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74.7p(-20.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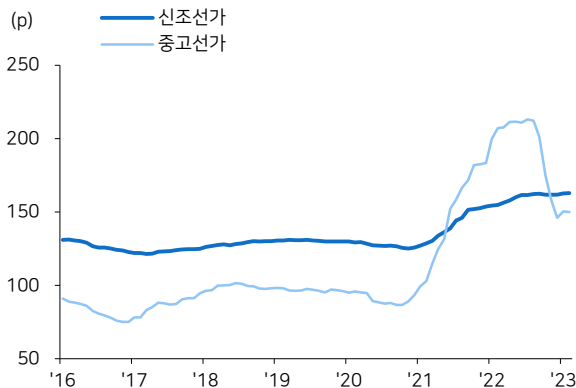
VLCC Spot Rate 65.0p(+7.5p WoW)



LNG Spot 운임 65.0p(+2.5p WoW) 92.5p(+2.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3.4p(+0.2p WoW) 150.0p(+0.0p WoW)



항공시장 지표 270.5p(-2.6p DoD) 103.6p(-0.7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Greek shipowner Latsco orders VLGC newbuildings at KSOE

현대중공업이 2월 17일 수주공시한 88,000CBM급 VLGC 2척의 발주처는 그리스 Latsco라고 보도됨. 척당 9,880만달러 수준으로 2026년 5월 인도예정임. 지난 12월 발주분의 옵션 물량으로 선가도 동일하다고 알려짐. (Tradewinds)

Up to 450 new LNG carriers will be needed in the next decade despite the 2022 order boom

GTT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최대 450척의 신조 LNG선이 필요할 전망으로 보도됨. 파이프라인에서 전환한 서유럽과 해상연료 수요가 더해져 LNG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함. 2040년까지 LNG수요는 240MTPA에서 325MTPA로 예상한다고 언급함. 2022년에 pre-FID 결정이 내려진 LNG프로젝트만 53MTPA 수준인데 2023년에는 더 늘어난다고 언급됨. 환경규제 강화로 LNG선 교체수요도 더 빠르게 증가해 향후 발주의 50%는 증가분이고, 50%는 교체 수요일 것으로 설명함. (Tradewinds)

Capesize bulker market falls 50% as owners 'wait out a recovery'

선주들이 벌크선 불황 속 성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평균 Capesize 스팟운임이 지난 한 주간 49.3% 가량 하락했다고 보도됨.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알려짐. 호주 광산업체들이 성약을 체결하며 태평양 지역은 성약 건 수가 많았으나, 물동량이 부족한 대서양 지역은 성약이 없었다고 언급됨. (Tradewinds)

Good fortune continuing for product tankers as LR1 rates squeezed upward

2월초부터 LR탱커가 주도하며 PC선 시장이 큰 수익성을 보였다고 보도됨. LR2 중동-일본 노선 운임은 월초 10,000달러/일에서 17일(금) 47,100달러/일까지 상승했다고 알려짐. 같은 노선의 LR1도 월초 14,700달러/일에서 41,900달러/일로 상승했다고 언급됨. 브로커에 따르면 LR1 운임 상승은 펀더멘털 개선보다는センチ먼트와 관련된 상승으로 설명됨. 지난주 물동량은 보통 수준이었지만, 타이트해지는 LR2와 MR시장이 LR1 운임까지 상승시키고 있다고 언급됨. (Tradewinds)

'Green light for Indonesia's potential first floating LNG project

말레이시아 Genting이 인도네시아 Kasuri 가스전 FLNG 설치를 승인 받았다고 보도됨. FEED 단계로 넘어갈 차례로 알려짐. 18년간 230Mmcf(일일 백만큐빅피트)를 생산하려는 계획임. (Upstream)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최종심사 돌입...7월께 판가름

유럽연합이 지난 17일(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심층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고 보도됨. 최종단계인 2단계 심사에 돌입했고, 구체적으로는 양사 합병 시 한국과 EEA 사이 4개 노선(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노선)에 대한 여객 운송 서비스에서 경쟁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언급됨. 집행위는 2단계 심사에 정식 돌입함에 따라 평일 기준 90일간 조사를 벌인 뒤 오는 7월 5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 최대 130일까지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언급됨. (연합뉴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